

「要路院夜話記」의 主題

吳 相 泰

<內 容>

- | | |
|----------|-----------|
| 1. 序 言 | 3. 反語의 效果 |
| 2. 作品 設定 | 4. 機智의 使用 |
| 2.1 背 景 | 5. 結 言 |
| 2.2 人 物 | |

1. 序 言

1.1. 「要路院夜話記」에 關한 研究는 일찌기 故 李秉岐 博士에 依하여 한글 가람본이 刊行되어¹⁾ 학계에 널리 알려져 오고는 있었으나 이에 對한 本格的인 研究는 없었다가 大邱의 李樹鳳 教授에 依해 漢文本 碯孫本이 發見되어 資料 紹介²⁾와 더불어 內容이 綿密히 分析되었다.³⁾

그 後 最近에 金東旭 教授에 依해 漢文本과 한글본이 對校되어 『「要路院夜話記」의 研究는 이 延大本에서 시작해야 될 것을 提言』⁴⁾하기에 이르렀다.

1.2. 일찌기 金思曄 博士는 「要路院夜話記」를 隨筆로 보고, 李秉岐 博士는 兩斑小說로 보고 趙東一, 李樹鳳 教授는 散文敎述(記事文, 敎述 장르 中의 협의의 隨筆)로 보아 오는 등 그 文學 장르上의 的確한 規定은 아직 固定되지 못한 채이며, 作者 問題도 朴斗世(瑞), 兪華柱, 李養吾 等の 各說이 있어 本考에서는 이들 問題 言及은 後日로 미루고 只 只 作品에 反映된 濶濶의 觀點⁵⁾을 分析함으로써 단순히 作品 기법상의 問題만이 아닌, 기법과 내

1) 李秉岐; 要路院夜話記, 서울, 乙酉文化社, 1949.

2) 語文學; 21號, 大邱, 韓國語文學會, 1969.

3) 李樹鳳; 「要路院夜話記」歌, 大邱, 東洋文化, 10輯, 1969.

4) 韓國古典文學大系, 13號, 서울, 民衆書館, 1976. p. 13.

5) 趙東一, 與夫傳의 兩面性, 啓明論叢五輯, 1969. p. 89 參照.

용과의 相關關係를 밝히고 나아가 可能한 限 이 작품의 主題 把握에의 接近을 爲해 本考를 作成한다.

1.3. 本考에 使用된 臺本은 앞에 밝혀둔 金東旭 博士가 친절하게 紹介한 한글본 延大本이다. 「말글로 된 것은 漢文 그것과도 더러 다른 곳이 있다…分量으로는 漢文 그것이 많고 要緊하기는 말글이 낫다.(傍點 筆者)」⁶⁾는 理由 뿐만이 아니라 골계적 요소의 抽出에는 漢文本 보다는 한글본이 言語의 匂양쓰 自體에서 오는 態度가 卓越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본 만으로는 意味 把握에 混亂이 따르는 漢詩 대목 등에서는 漢文本을 곁드러, 金東旭 教授의 對校本과 李樹鳳 教授의 內容 分析에 전적으로 힘 입어 本考를 作成함에 두 교수님께 거듭 고마움을 드린다.

1.4. 한 걸음 더 나아가 藝術로서의 文學作品을 對함에 있어 이 藝術作品의 基調에 담겨진 골계적 요소의 發掘은 우리 文學本質의 한 要素의 發掘이 겠기에 골계미가 作品上에서 如何히 具體的으로 處理되고 있는가의 살림은 우리 文學의 傳統, 나아가서는 우리 思想史 再構를 爲한 한 傍系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筆者 卞素 생각의 일단이기도 하다.

2. 作品 設定

2.1. 背 景

다음의 송각후더 낭반든 곳의 절종홀가 후여 홀 숫막의 드러가니 봉당 우리 홀 낭반이……>(p. 444)

이렇듯 作品의 地域 背景을 具體的이고 限定的으로 設定함으로써 作品의 始作부터 現實性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諷刺가 散在하여 있는 「九雲夢」이나 「許生」, 「洪古童傳」 등의 作品과 견주어 보면 곧장 알 수 있다. 政治的으로 事大國이며 文化的으로 敬慕의 對象인 中國을 背景으로 擇하는 「九雲夢」과도 다르며, 황당무제하고 비현실적인 理想鄉을 追求하는 無人空島나 禪島國이 展開되는 「許生」이나 「洪古童傳」의 어느 一面처럼 막연하지가 않다. <素沙郊>, <要路院>, <한 숫막>에 限定하여 現實과 密著시켜 놓고 있다. 「要路院夜話記」에서의 諷刺性的의 處理는 다시 말하여, 당시의 現實 世界와는 全然 相反된 어떤 架空의 世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實際로 存

6) 李秉岐; 前掲書, p. 7.

※ 페이지 표시는 韓國古典文學大系 13號의 것임.

在하면서도 社會制度나 人間現實을 왜곡되게 파악한 현실(숫막)을 그려 보임으로써 現實 속에 內在한 眞實을 밝히고자 하는 점이다. 「諷刺의 中心 課題가 무엇보담도 진실성과의 관련인 것이며 풍자가 노리는 문체란 人間生活에 대한 폭로와 비판과 모욕을 원한다.」⁷⁾는 점에서 이 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人物과 行動의 眞實성을 증가지킬 수 있는」⁸⁾ 背景으로서 이 <숫막>은 가까운 現實 社會 自體를 把握하는 것이 眞實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歷史的인 現實 問題이거나 어떤 狀況 속의 人間的 現實이라기 보다는 社會的 現實을 더 強調하고 있음을 客觀的으로 관찰할 수 있다.

2.2. 人 物

2.2.1. 「要路院夜話記」의 登場人物은 鄉班과 京班 뿐이다. 이 作品에^는 어린이도 女人의 登場도 찾아 볼 수 없다.

勿論 鄉班을 따라 다니는 <병든 말>이 있고 京班의 호명을 받아 <작도 간으로써 더답고> 나오는, <두 종>이 있지만 作品에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Protagonist로서의 京班과 Antagonist로서의 鄉班은 거짓의 가면을 벗기려는 眞實의 대립자로서, 「行動을 위한 能力的 複合體이며 主體요, 主題의 體顯者」⁹⁾로서 손색이 없다.

女子의 眞操 觀念을 示唆함으로써 當時의 社會制度나 男性優位 思想을 指摘하려는 「장끼전」의 主人公이나, 李朝 後期 賣官賣職, 腐敗相을 暴露 糾彈하려는 進士의 말 探鳳같은 女性도, 春風이 방탕하고 好色 飲酒하며 家産을 蕩盡하는데 대한 아내나 기생같은 女人도 없고 道術 行却을 그림으로써 政治의 腐敗相이나 黨爭의 모순을 指摘하고 貧民을 구제하려는 主人公의 義狹心을 나타낸 「田禹治傳」의 非現實的, 超人間的인 人物도 없다.

2.2.2. <무오춘의 너 서울로부터 과거보고 올 게 힘직이 피폐하여 병든 말게 극복을 점하고 종이 잔말하고 외복이 남누하니 길희든 더마다보는 적 업슈이 너이러라.>(p.444)

7) G. Highet; The Anatomy of Satire, 1967, Princeton, Univ. p.158. The central problem of satire is its relation to reality. Satire wishes to expose and criticize and shame human life,

8) 李在鏡, 申東旭; 文學의 理論, 學文社, 1963, p.114.

9) 李在鏡, 申東旭; 前掲書, p.102.

이런 場面을 『春香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李道令이 거지꼴을 하여 春香의 집으로 찾아 왔을 때, 期待가 어긋나고 虛脫感에 빠진 月梅가 自滿의 揶揄가 섞인 욕설이 마구 나오지만 御使로서는 內心에 이미 結果를 整理한 터이다. 自信과 餘有모체 짙은 軌跡에 따라 나오는 대답에는 滑稽美가 가득하다. 行色이 疲弊하고 衣服이 濫褻한 거지꼴의 鄉班을 보고 <봉당우허 반만 누었다가 너 오는 양을 보고 종을 크게 불러> (p. 444)대는 京班에게 <너 장차되는 네를 배플냐 하니 깍이 오히려 답지 아니커놀 따음의 혜오더 이 반다시 경화거쪽으로 의관이 선명하고 안마호사하니 날로써 시골 사름이라 하여 답대물 아니하논>(p. 446) 鄉班의 登場은 京班의 어리석은 氣와 驕慢한 뜻을 詭譎로 속이려 하는 속셈이었기에 月梅를 對하는 御使처럼 意識的으로 恭順히 굴실거된다. 東堂에 壯元, 監試에 두번 壯元, 增廣에 세번 初試하였으나 會試에서 또 落傍하여 衣冠破笠의 거지꼴로 封堂을 찾았을 때 威勢가 滔滔한 京班 앞에서 「窮者의 處地인 鄉班으로서는 于先 愚鈍한 사람으로 假裝하고서라도 同宿者의 地位에까지 認定을 받기 爲해서는 不可避」¹⁰⁾한 것으로 京班과 鄉班은 <숫막>에서 우연히 만나 變裝을 부리게 되는 人物들이다.

2.2.3. 이렇게 <숫막>에서 만나 京班과 鄉班이 나누는 對話는 單純한 意見 交換의 對話는 아니다. 李朝 兩班社會의 矛盾相을 集約的으로 尖銳化시켜 諷刺의 效果를 나타내려는 ‘예정된 대화’다.

A : <깍이 회롱하여 갈 처음은 가더노라 하고 이제는 자고져 하니 이는 두말이 로다.>(p. 446.)

B : <너 더답하되 처음은 두라 하시고 이제는 가라하시면 이는 호달이니잇가> (p. 446.)

A : <마소 드러베고 낭식할 니라 홀디 깍이 우셔 갈오더 그디 소도 가져왔느냐 소논어이 겹하여 니르오며 낭식을 썰이라 이룬디 종이 풀인 줄 모르느냐>(p. 448.)

B : <너 대왈 향곡 사름은 돌과 소를 겹하여 니르고 낭식을 썰노 겹하여 니르노니 이런 말을 향곡은 웃더아니하더니>(p. 448.)

다시 말하면, A(京班)와 B(鄉班)의 質問과 答辯으로 연결되는 對話는 自然的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臺詞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對話는 平等의 根據 의에서 두 對立된 人物의 意思를 眞情으로 나누는 自發的인 表

10) 李樹鳳; 前掲 論文, p. 50.

現이라기 보다는, 鄉班의 設定된 疑問에 依하여 裏面에 眞實을 담고 있지만 意識하지 못한 채 表面上으로 어리석게도 答辯해 주는 京班의 모습이 뒤따라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京班의 虛僞가 鄉班의 하찮은 對答에 依해 그 質相이 드러나는 過程은, 京班의 언어 모방을 따라 李朝兩班들의 生活相이나 社會相을 再批判하고 反省하게 하는 反語的 諷刺의 방법이다. 嘲弄을 當하는 京班의 失手의 續出이다. 이런 鄉班의 京班 흉내는 왜곡된 事實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對화를 爲한 相對役일 따름이지 두 人物의 成長過程이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古代小說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至善의 人物이거나 惡人形도 아니요, 苦難을 解決한다거나 社會를 살아가는 能力面에서의 일체의 性格이 나타나 있지 않은 沒個性의 인물일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要路院夜話記」는 小說이라기 보다는 詩話類나 隨筆類에 屬할 一面이 있다고 보겠다.

2.2.4. <의복이 낡누술, 황석이 퍼져술> 물골의 鄉班을 보고 <봉당 우 허 반만 누엇다가> 호령하는 京班은 저 그리이스의 古代 喜劇에 登場하는 誇張을 부려 기단함으로써 自己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상투적 人物인 백기는 alazon에 견줄 수 있다. 이에 對하여 <어린 氣와 驕慢한 뜻을 너 詭譎로 속이리 할는> 鄉班은, alazon에 對立되는 敵對者이자 몸집이 작고 약해빠진 殘敗者이나 익살맞고 거약이 풍부하여 자기의 재산과 교묘한 化술로써 敵인 alazon을 窮地에 빠뜨리는 eiron에 견줄 수 있다.¹¹⁾ 京班이 서술하는 말투가 鄉班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작품의 골격적 구조가 성립 된다.

즉 鄉班—eiron—protagonist—主人公과 京班—alazon—antagonist—敵對者의 두 인물은 단순한 인물의 갈등 대립이거나 內的 自我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당시 社會의 모순을 지적하고 不合理를 矯正하는 意圖를 對話의 過程을 通하여 反語的으로 나타내려는 作者의 考案에 依한 人物設定이라고 볼 수 있다.

3. 反語의 效果

3.1.1. 「要路院夜話記」의 構造는 滑稽美에서 찾을 수 있다. 그 中에서도 反語의 效果는 作品 全體에 散在하여 잘난 체 우쭐거리던 京班이 못난이처

11) 文學, 2號, 1966, 文學社刊, p. 296 參照.

럼 行勢하는 鄉班에 依해 優劣이 顛倒되는 構造 속에 調和되어 있다.

反語法이란 修辭學의 基本 方法中の 하나로서 文學的 表現의 裏面에 숨어 있는 態度나 評價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表面上의 칭찬이나 是認이 非難이나 불찬성을 나타내는 境遇로서 反語의 表現함으로써 作家가 意圖하는 本意를 効果의 由로 達成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辭典의 概念이 反語의 全部는 아니다. A를 말해서 A의 反對나 裏面을 나타내는 單純한 修辭學的 方式만이 아니고 實際 作品上에서는 보다 複雜하게 形成되고¹²⁾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¹³⁾

3.1.2. (A) <그더 형상을 보니 반드시 활을 쏘지 못했거니와 능히 글을 하느냐 대답할 문자는 비호더 못하고 글은 잠간 변화시더 다만 일다섯줄 음의 들지줄 웃은 줄이 외오기 어렵더이다.>(p. 460)

(B) <적이 차탄왈 사람이 어이 경향이 다 못리오마는 서을사람은 진서글 못하리 업고 식골사람은 안문도 못하노도다. 글을 못하건 어이 사람이라 하리오 너남 하디 나도 글을 못하디 남이 사람이라 하니 잊지 말두시 글을 할 후야 사람이라 하리오.>(p. 462)

(C) <빛사람이 공부조라 하시니 잇느니 그더 드렸느냐 너 더하디 못지 못하였느냐 또문왈 향교의 계수를 뒤게 하느냐 더남하디 공조의 하느냐 적이 웃고니르더 공부조를 공조를 닐오미라 너남왈 향인의 무식한지라 다만 공지있고 공부조라 말습을 못지 못하었나이다.>(p. 464)

(D) <네도척이란 사람을 드렸느냐 대답하디 드렸느니라. 조왈도 척과 공조와 닐 어지고 감왈 공조는 성인이오 도척은 사오나오니이다 적이 풀오더 진실노 올토다. 청척익일은 중놈도 그 붉은 줄을 알고 황혼은 금슈도 어두은 줄을 아느니 공조와도 척은 털지볼모하니 잊지 못리오 슬프다. 글하는 사람은 성인이오 글 못하느니는 금슈의 뒤라 하여늘 답하디 흥주는 글을 하시니 진실노 성인이오 나도 언문을 하니 금슈는 먼하리로소이다.>(p. 464)

12) 한 예로서 소크라테스의 反語(Socratic irony)를 들어 본다면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그가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른다는 사실을 밝혀 내기는 하지만, 그가 “나는 모른다”고 하는 말의 眞意는 그 표면 상의 의미의 반대인 “나는 안다”로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구테 어 다른 말로 바꾸다면, “나도 잘 모르지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는 알지 될 희망조차 없으니, 우선 그 점을 인정함으로써 더 잘 알도록 하자”는 식의 복잡한 의미를 낸 것이다.

韓智現; 反語法의 性格과 作家의 視點, 國語國文學 64號, p. 38 參照.

13) Dramatic Irony, Romantic Irony, Irony of Fate, Tragic Irony, Gentle Irony, Socratic Irony 等等.

(A)→(B)→(C)→(D)의 京班의 質問에 對한 鄉班의 對答은 反語의 手法에서 深度 깊지 兩班 虛勢가 沒落하는 모양을 記述하고 있다.

(A)→에서 <문자는 배우지 못하고>라는 表面上的의 의미를 알 세워 놓고 <글은 잠깐 배웠지만 다만 열 다섯째 줄 중의 둘째 줄 같은 글이 외우기 어렵다는 正確性은, 지식을 자랑삼아 빼기는 京班에 대하여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存在인 鄉班이지만 기략으로써 양난 근성을 분산시켜 독자의 共感을 얻게 되는 것이다.

(B)→에서 <나도 글을 못해도 남이 나를 보고 사람이라 하니 꼭 글을 한 후라야 사람 대접을 받겠는가>의 反問은 見解가 다르고 次元이 다른 鄉班에 對한 지나친 輕視에 對해 京班의 見解를 파괴하는 은근한 蔑視의 態度다. 對立된 두 생각과 서로 갈등하는 의견의 충돌 속에서 「적어도 慣習적으로 無視 當한 眞實의 一面을 보여 주자는 諷刺家로서의 작자의 의도」¹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實質的인 價値를 知悉하고 있는 鄉班이 透徹한 諷刺으로써 虛偽 價値의 價値 主張을 放棄시키는 精神 態度인 것이다. 이에 이르면 反語의 極端적, 否定的인 의미가 나타나고 眞理의 產婆役으로써의 鄉班의 設定은 더욱 뚜렷해 진다.

(C)→에서 <鄉班이 無識한지라 다만 공자 있고 공부자란 말씀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京班의 質問을 回避하여 安心시킨 後 意圖的으로 鄉班의 말하고자 하는 언어의 局面에 包含된 '공자=공부자'를 밝힌으로써 京班의 安心이 거짓임을 판단하게 한다.

鄉班의 偽裝된 無識을 京班에게 安心시킨 實際는 말하여진 것과 의미된 것과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緊張이나 相衡을 포함한 構造的 反語의 眞正한 모습이다. 공부자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향교 제사는 공자에게 드린다는 소박한 대답에서 「背定과 否定的 상호 침투현상과 아울러 결합된 작겨진 표면내용—底意—를 諷諭하는 태도를 밝힐 수 있다. 이는 풍자처럼 예리한 공격성을 갖지 않고 또 해학처럼 우월의식과 공감, 사랑이 배합한 溫情과도 다른 것」¹⁵⁾이 바로 反語인 것이다.

(D)→에서 <네 대답하되 행차는 글을 하지니 진실로 성인이오, 나는 언문을 하니 금수는 면하리로소이다> 또한 작자의 變裝의 계획이다. 兩班 對 兩班의 對決이기 때문이 아니라, 反語의 手法에서 오는 은근한 말씨의

14) He wishes to make them see the truth—at least that part of the truth which they habitually ignore. G. Highet; Ibid, p. 19.

15) 金永秀; 韓國의 諧謔에 대한 誤解, 月刊中央 28號, p. 145

反語이기 때문이다.

作品 設定 自體가 「春香傳」이나 「襄裨將傳」에 등장하는 <房子>이거나 古代劇의 <말뚝이>였다면 露骨的인 椰榆나 욕설이 퍼부어진다. 따지고 보면 鄉班과 京班은 身分上 對等的 關係이나 去勢된 鄉班의 處地는 G. Owell의 풍자작품 「동물농장(Animal Farm)」에서 보는 「모든 動物은 平等하다. 그러나 어떤 動物은 다른 動物보다 더 平等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re more equal than others)」고 하는 「모든 動物」이요, 京班은 「다른 動物」에 相當하는 存在다. <行次는 글을 하시니 眞實로 聖人이오> 하는 절집은 표면상의 칭찬이 <나는 諺文을 하니 금수는 면하리로소이다>라는 最少의 辨明 앞에 京班의 處地는 난처해지고 屈服 당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表面上의 去勢當한 鄉班의 모습은 內的 虛弱이나 不滿의 表示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裏面의 眞實은 이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勝利인 것이다.

4. 機智의 使用

「要路院夜話記」의 中間 部分에는 所謂 肉談風月과 眞書風月이 14回나 계속된다. 李朝 文人들의 實際 生活相이라고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은근한 가운데 孤高한 韻致가 깃들여 있다. 이 중에서도 特히 肉談風月 속에는 世態의 反映과 京班에 대한 諷刺가 깊은데 이 諷刺를 効果的으로 나타내는 機智의 性格을 간추려 보기도 한다.

機智는 諷刺나 諷諧 反語와 더불어 滑稽의 下部構造로서 불가결한 要素의 하나다. 이는 滑稽의인 驚異의 충격을 產出하기 爲하여 意圖的으로 考案되어지는 간결한 表現으로 순수한 形式的인 웃음이다. 그 對象이 반드시 言語라는 點에서 다른 滑稽의 屬性들과 區別된다.

어떤 근거가 없는 表面的 意味의 背後에 藏된 意味가 독자 앞에 提示한 表面的 意味의 自減과 함께 滑稽的인 効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諧諷이 언제나 意圖的인 웃음이 아닌 反面에 機智는 언제나 意圖的인 웃음이라는 것이다.

(A) 我觀鄉之賸

怪底形體條

(B) 我觀京之表

果然舉動戎

(A)의 <내 쇠골나기를 보니 형상 가지기를 피저히 흥논도다>(p. 468)의

對句로 (B)의 <내 서울 거술 보니 과연 거등이 되도다.>(p.470)에서 言語를 對象으로 二重의 意味에서 形成되는 機智(wit)의 效果가 배합된 滑稽美의 멋을 찾을 수 있다.

(A)→(B)의 進行過程에서 처음에 讀者들의 注意를 환기시키는 表面上의 言語 意味 그대로는 근거가 없는 揶揄다. 그러나 表面上의 意味 裏面に 잠긴 意味가 指摘되었을 때, 갑자기 京班의 權威가 몰락하게 됨을 感知할 수 있다. 한글과 한문의 言語 음향과 韻字를 맞추고 對句를 이루는 兩班 文人들의 詩作은 兩班의 品位를 높이고 그 權威를 지키는 최고의 堡壘다. 그러나 이 品位와 權威가 鄉班의 對句 內容에 依해 허망하게 卑下된다.

이런 境遇가 만약 탈춤이나 가면극에서라면 욕설이나 야유에 의해 양반 권위나 위선이 파괴되고 비판되지만 이런 狀況에서도 鄉班이 점잖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反語와 機智의 效果가 작품을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言語의 의미와 음향의 결합 관련에서 일어나는 肉談風月은 다음에도 계속 연결된다.

(A) 不知諺文辛

何怪眞書沼

(B) 大底人物貸

不過衣冠夢

(A)의 <언문 쓸 줄을 알지 못하니 엇지 진서 못함미 고이허리오>(p.468)에 대한 對句 (B)의 <대저 인물을 꾸여시니 불과 옷과 관을 꾸꿨도다>(p.474)도 京班과 맞서서 그의 도전을 감행하여 卑下시키는 鄉班이 勝利를 거두는 場面이다.

諺文 쓸(辛) 줄 모르는 京班의 鄉班에 대한 輕視는 대체로 사람은 비러(貸)먹을 행사로다. 衣冠 꾸미기(夢)는 지나치게 하였다는 사실에 比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要路院夜話記」의 內容은 넓은 의미의 李朝 兩班 社會의 風物誌이다. 李朝 知識人들의 道德觀 乃至 倫理觀에 關한 作家와 現實의 對立 狀況에서 그들의 不條理와 社會制度 全般의 矛盾을 완곡하게 批判하는 記事體이다.

風月이라는 말뜻조차 모르노라는 거짓 속임수로써 결국은 眞書를 하는 京班을 처음에는 勝利感에 젖게 하지만 그의 생각이 客觀性을 상실하게 되어 結局은 급격히 卑下되고 마는 것이다.

한글과 한자의 흡과 訓의 反切의 묘미<식골나기(賭), 형상 가지기(條), 서울 거술(表), 거등이 되도다(戕), 언문 쓸(辛)줄, 진서 못(沼)함미, 인물

을 貸(貸)시니, 옷과 관을 꾸밈(夢)도다>는 機智의 묘미다. 身分上 兩班이면서도 생활상으로는 社會的 特權을 누리지 못하는 몰락한 鄉班의 肉談風月에서만이 아니라 京班의 다름과 같은 귀절에서도 機智의 비수가 섞인 社會制度的 矛盾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남의게 속이 문 보도다 니론바 김승은 서리오 관원이 아니라 관원이 었디 짓고 톨니리오 쓴겨시 사되 아니라 승두요 님은겨시 관덕 아니라 단녕이니…….>
(p. 450)

纓頭를 紗帽로 보고, 胥吏를 官員으로 誤認한 鄉班의 어리석음은 鄉班의 個人으로서의 俗物的인 어리석음이 아니다. 鄉班을 어리석게 登場시키지 않을 수 없는 社會의 어리석음이요, 金력과 權力에 의한 中央集權的 社會制度的 不條理에서 生活하는 社會의 一員으로서의 어리석음이다.

5. 結 言

지금까지 적어 온 「要路院夜話記」의 滑稽的 觀點에서의 觀察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背景設定에 있어 풍자의 中心課題인 眞實性을 보다 作品 自體에 密著시키기 爲하여 具體的이고 限定的인 <한 숫막>에 固定시킴으로써 다른 古代小說의 地域 背景과는 다른 點을 알 수 있다.

둘째, 作品의 人物 設定에 있어서도 餘他的 古代小說이나 古代劇에 나타나는 性格을 갖춘 人物이 아니다. 鄉班—eiron—protagonist—主人公; 京班—alazon—antagonist—敵對者의 關係에서 보아 單純히 作家가 두 人物을 對立시키고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로서의 人物이라기 보다는 李朝 兩班 社會의 矛盾相을 集約的으로 尖銳化시켜 諷刺의 效果를 나타내기 위한 ‘예 정된 對話’의 手段으로서의 人物 設定이라는 點이다.

셋째, 「要路院夜話記」의 構造는 作品全體에 散在하여 있는 反語의 效果가 滑稽美를 形成하여 잘난 체 우쭐거리는 京班에 대해 못난이처럼 行勢하는 鄉班에 依해 優劣이 顛倒되는 調和를 이루고 있다.

넷째, 滑稽美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機智가 特히 肉談風月 속에 교묘히 적용하여 漢문과 韓글의 音과 訓에서 오는 反切의 묘미와 더불어 作品의 멋을 승화시키고 있다.